

옛 국군광주병원·기무부대 시민 품으로



옛 국군병원



옛 기무사

광주시-국방부 24만5000㎡ 양여·교환 계약

103억원 5년간 분할 납부...5·18 사적지 활용

5·18 사적지이기도 한 광주 서구 화정동 옛 국군광주병원과 쌍촌동 옛 기무부대가 드디어 광주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광주시는 9일 “국방부와 과거 국군광주병원 사시시설 이용했던 옛 국군광주병원 등 24만5000㎡의 양여 및 교환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2월 24일 광주시와 국방부가 체결한 ‘국·공유지 양여·교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최근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양여 승인과 함께 교환계약도 동시에 체결됐다.

시는 국방부 소유인 서구 소재 옛 국

군광주병원과 기무부대 토지의 절반인 6만3000㎡를 비롯한 마루·중앙공원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 나머지 토지는 시 소유인 서창동 양묘장 부지 17만㎡(137억원)와 교환했다.

시는 교환차액 10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5년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시는 옛 국군광주병원과 기무부대 부지는 5·18 사적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 등을 통해 보존과 치유, 교육, 휴식 기능 등을 담은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중인 마



특공원과 중앙공원은 도심공원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 밖에도 국방부 소유인 광산구 신촌동 옛 장암마을 일대 5만8000㎡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4면짜리 축구장도 조성중이다. 축구장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축구 훈련장으로 활용된 뒤 시민에게 개방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되돌려받은 5·18사적지(옛 국군광주병원, 기무부대)는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에 포함해 활용 방향과 세부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광주의 미래 발전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광주시내 군 관련 시설 가운데 북구 31사단과 광산구 평동 군 훈련장,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등은 여전히 이전 계획이 지연 또는 중단돼 있는 상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노벨문학상’ 佛 파트리크 모디아노

대표작 소설 ‘어두운 상점들...’

올해 노벨문학상이 프랑스 국적의 파트리크 모디아노(69)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파트리크 모디아노를 선정했다.

현대 프랑스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파트리크 모디아노는 1945년 볼로뉴 비앙쿠르에서 태어났다. 철학적이면서도 정적인 문학세계로 알려진 그는 1968년 첫 소설 ‘에투알 광장’으로 로제 니미에상, 페네옹 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으며 1972년 ‘외곽도로’로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차지하면서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1975년 ‘슬픈빌라’로 리브레리상을,



(1977), ‘작은 보석’(2001), ‘한밤의 사고’(2003)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대표작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는 바스르지는 과거, 잃어버린 삶의 흔적, 악몽 속에서 잊어버린 대전의 경험을 주제로 한 어떤 기억 상실자의 이야기로 담았다. 주인공을 통해 작가는 ‘소멸된 자아 찾기’라는 보편적 주제를 신비와 몽상의 언어로 탐색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함평에 국내 첫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21일 개원...정글관·사막관·아나콘다관 등 갖춰

국내 최초로 뱀을 주 소재로 함평군에 조성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이 오는 21일 개원한다.

전남도는 9일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이 함평군 신광면 가덕리 함평자연생태공원 근처에 8만5000㎡의 부지에 연면적 2673㎡ 규모로 조성 완료돼 조만간 문을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하 1층, 지상 2층 및 별관의 전시관을 갖췄으며, 1층은 한국관, 체험관, 교육관, 2층은 사막관, 정글관, 영상관 등으로 구성됐으며, 별관에는 아나콘다관(대형뱀관)이 있다.

함평군은 지난해 8월 전시관을 완공하고 그동안 시설물 시운전으로 독소를 제거했으며, 전문 사육사 1명을 채용하고, 함평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환경부에 생물자원 보전시설로 등록하

는 등 개원 준비를 마쳤다.

이곳에는 능구렁이, 까치살모사 등 국내종과 외국종인 캥구루라, 사하라살모사, 돼지코뱀 등 89종 666마리의 양서·파충류를 전시한다. 특히 별관에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초록색과 노란색 아나콘다 2종 7마리도 볼 수 있다. 입장료는 어른 3000원(개인), 2500원(단체), 청소년 2000원(개인), 1500원(단체), 어린이·유치원생 1000원(개인), 800원(단체)이며, 21일 개원일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이 공원과 인근의 함평자연생태공원, 함평엑스포공원 등을 연계 생태테마 관광상품을 개발, 수학여행 코스와 체험학습장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뱀쇼(코브라 쇼) 등 특별전 개최 및 다른 동물원과 교환 전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

‘시교육청 은행빛 차입’ 1면에서 계속

특히,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이 확대되면 지방교육재정은 압박 수준을 넘어 파탄 지경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시교육청이 추산한 내년 교육재정 전망을 보면 올해 대비 재원이 1943억원 부족하다.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430억원, 순세계잉여금(불용 이월금) 600억원 등 총 1030억원의 세입이 줄어든다. 반면 세출은 인건비 인상(3.8%) 230억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 증가분 220억원, 초등 돌봄교실 운영 증가분 60억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증가분 60억원 등 대략 913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들어올 예산은 줄어든다고 예산은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교육청 ‘보육 예산’ 놓고 정면 충돌

이에 따라 내년도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 사업의 파행이 우려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8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 2년동안 마른 수건에서 물을 쥐어짜듯이 힘겹게 교육재정을 운용해왔는데 더 이상은 무리”라며 “국비 지원이 없으면 내년 누리과정 증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7일 “정부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이 파탄났다”며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고 격앙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무상보육은 정부와 지자체가 감당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상보육 책임을 지방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어린이집 관련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장 교육감은 이어 “무상보육 관련 법과 시행령이 상충하고 있다”며 법 적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보육’이 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했는데, 그 시행령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해 법과 시행령이 상충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한다’고 목적을 밝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법 해석’과 ‘격양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100원 택시’ 운영 시·군 공모

전남도, 31일까지

전남도가 민선 6기 대표 공약인 ‘100원 택시’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시·군을 모집한다.

전남도는 9일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100원 택시 시행 시·군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기간은 내년 1년간이며, 사업비 11억원 중 5억5000만원은 도비, 나머지 절

반은 시·군이 부담한다.

시·군 당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 11개 시·군을 선정하며, 하반기 모니터링 후 추가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군은 예산, 시행 범위, 여건 등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수혜 대상자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제출해야 한다. 전남도는 다음달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의료광고심의의 제 140611-중-59153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 제 081110-중-10719호

Beautis
Clear skin & laser clinic

맑은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 항노화치료 | 기미클리닉 | 성형외과 | 지방이식 흡입 | 모발이식 관리 | 에스테틱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세라, 써미지, 해너겟 복합치료
- ② 하드롤레이저: 스무스필, 아이슬, 브이필, 프락셀
- ③ 최 모 리 어 지: 켈로맥스, 다이오우드메오
- ④ 피 부 미 백: 루미나스원 엑셀V, 켈로맥스 루비레이저
- ⑤ 주름·흉터: 프락셀듀얼, 울트라펄스임프루, 프렉토라 인트라세, 프락셀 세너
- ⑥ 모공: 벤지치, 프락셀5종
- ⑦ 비만: 네오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피어빌딩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 385-0009 |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
【윤임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 525-7555